

보도	2023.7.12.(수) 10:00	배포	2023.7.12.(수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 장	이준교	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박은혜	(02-3145-7901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 -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3.7.12.(수)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(11개사) CEO와 간담회를 개최
 - 동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'22.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로서,
 - 이복현 원장은 지난 간담회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와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,
 -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애로·건의사항 및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금융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금번 자리를 마련

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3. 7. 12.(수) 10:00 ~ 11:30
- ☑ 장 소 : 페어몬트호텔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)
- ☑ 참석자 : **(금감원)** 금융감독원장, 국제업무국장(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)
 - (은 행)** JP모간체이스 김기준 대표, HSBC 정은영 대표, 중국공상 허샤오젠 대표, MUFG 나카무라 신키치 대표
 - (보 험)**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대표, AIA생명 네이슨 마이클 창 대표, 에이스손보 에드워드 콕 대표
 - (금 투)** 유안타증권 귀밍정 대표, 골드만삭스증권 정형진 대표, 베어링자산운용 박종학 대표,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박천웅 대표

II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

- 이복현 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①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, ②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
 - 금감원內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(4명)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,
 -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완화* 및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를 확대**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,
 - * 원화대출금 2조원→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적용기준 완화
 - **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(장기차입금의 50% 한도)도 포함
 - 향후에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
- 또한,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힘
- 우선,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,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제통합계좌 구축·운영 등 旣마련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
 -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
- 다음으로,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망분리·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 금융보안규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,
 -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, 외환시장 개장시간의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임을 설명

- 마지막으로,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
-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,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,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

III 기타 사항

- 모두발언 후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, 한국 금융 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,
-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, 금일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

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